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 오늘 주일공동예배는 각 학교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유치원: 권하성 권하은 이가람
초등학교: 김진을 최시현
고등학교: 박인혁 이나영 이예준
대학교: 박세림 신수정 이시온 조이서 조한결 최진영
한명훈 한민아
대학원: 서진오
- 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공동체 5차 정기 총회가 다음 주일(25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정관개정과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원 선임 승인 건이 있습니다.
- 성서일기 진도표가 디모데전서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가정 (진오 졸업 감사)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가정 (한결 졸업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어진 전도사 (생일 감사)
이나영 청년 (사랑방공동체학교 졸업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7 호

2024년 2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학교 6학년 학생들과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교 동생들의 선물을 사오는 일입니다. 한 사람 당 7~8명 정도의 선물을 사게 되는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열흘 정도의 시간동안 선물을 고르느라 정말 바쁘고 이 선물을 다 사고 나면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선물 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평소에 좋아하던 건 무엇일까? 색상은? 크기는? 적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물건을 선물하는 것 같지만, 졸업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삶을 나누는 동생들을 생각하고 물건 뿐 아닌 추억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느낍니다. "형들도 우리 선물을 이렇게 힘들게 샀던거죠?"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신발을 만드는 주인공 세몬은 외투 한 벌을 아내와 함께 입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세몬은 농부들에게 받은 외상값으로 새 외투를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하자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외투를 입혀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후 이 남자, 미하일라가 세몬을 도와 신발을 만든 지 1년쯤 지났을 때에, 한 신사가 세몬을 찾아와 고급 장화를 주문합니다. 세몬은 이 일을 맡기 꺼려하였으나 미하일라가 그 신사를 보고 세몬에게 이 일을 하자고 하고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몬은 미하일라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신발을 의뢰한 신사의 하인이 찾아와 신사가 갑자기 죽었으니 장화대신 슬리퍼를 주문하고 미하일라는 미리 만들어둔 슬리퍼를 내어줍니다.

또 시간이 흘러 6년쯤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의 가죽구두를 주문합니다. 미하일라가 구두를 만드는데 그 여인이 세몬의 아내에게 이 아이들은 이 여인의 친딸이 아니

며 아버지는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 자신이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 합니다. 구두가 완성되어 여인과 아이들이 떠나자 미하일라도 떠나겠다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하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깨달음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미하일라는 가난하지만 자신을 거두어 준 세몬가정을 통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신사를 통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인을 통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졸업감사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 해 우리 교회에는 각 과정을 졸업하는 16명의 졸업생과 오늘 오후에 졸업할 13명을 포함, 사랑방공동체 꾸러기학교 196명, 어린이학교 118명, 멋쟁이학교 115명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나라 삶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의 필요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심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들은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 시편 23편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82 92 / 90

기도 : 윤호중 집사

성경 : 아가서 2장

제목 : 나의 사랑하는 임, 그대와 함께

1-3 여자와 남자의 사랑노래

해석: 사랑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보인다. 사랑은
아름답고 힘을 얻는다.

적용: 하나님과 사랑하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힘을 얻자.

4-7 임과 함께 하는 시간

해석: 잔치 후에 임과 함께 있음으로 위로 받고 힘을 얻는다.

적용: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갖자.

8-17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해석: 사랑하는 임과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

적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여우)
이 무엇인지 살피고 없애자.

올해 늘푸른은

안녕하세요 늘푸른사랑방 방장 조이서입니다. 요즘 늘푸른은 복학을 위해 부랴부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본인이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알찬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늘푸른은 함께 새로운 목표를 몇 가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통독입니다. 2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일 신약을 2~3장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다는 점과 각자가 느낀 것을 서로 이야기 하며 다양한 의견도 나눌 테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식 당번 정하기입니다. 간식 당번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로 방모임을 못하여 간식 당번도 자연스레 사라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회로 간식 당번을 정해 우리 늘푸른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방모임에 참여하고 싶게끔 만들고자 다 같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당번이라는 책임감도 생길 거고요. 모두가 잊지 않고 잘 챙겨서 더 재밌는 방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오전 8~10시에 일어나자는 목표를 두고 아침에 일어난 것을 인증도 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저 포함 늘푸른들은 가끔 실패(?)하기도 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교회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번 늘푸른 겨울공동체생활에서 석지원 늘푸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저에겐 큰 울림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남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늘푸른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푸른사랑방 조이서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1 : 6 인도자
2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56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

시 편 23편 설교자
259 따뜻한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69 다함께
인도자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향민 최신혜 / 봉헌위원 : 한미선 / 꽃꽂이 : 김영화
듣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친히 가르치시는 하나님
각 학교의 졸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저자인 다윗은 자기 삶에서 역 사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자기의 고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고백이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고 전달되는 것은 그가 목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해 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고백은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과 관련된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를 세워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또한 선한 목자라고 정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과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선의 관심은 양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 사람입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는 졸업을 앞둔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놀이를 했습니다. 9명 친구들과 선생님 3명까지 총 12명이 '우리 집에 왜 왔니'와 '쥐와 고양이'를 했습니다. 한 시간을 넘게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놀아서 얼굴은 모두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엄청 커진 목소리로 웃고, 떠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월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의 생일을 위해 졸업을 앞둔 형, 누나들이 마음으로 주는 선물로 커다란 하트 또는 아주 특별한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또 몸으로 주는 선물로 어부바, 꽃가마, 꽃마차 등 모든 종목에 서로 하겠다고 손을 번쩍 번쩍 들어서 다 들어주느라 생일잔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일에 특급 축하를 받은 동생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쑥스러워 고개를 잘 못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식 준비를 했습니다. 입장, 춤, 졸업증서 받기, 노래와 절 등 매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가장 멋진 꾸러기들의 졸업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러기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한 졸업하는 꾸러기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두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졸업하는 멋진 꾸러기들을 축하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15일 목요일에는 아침부터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눈 때문에 공동체 땅은 진창인데 비까지 내려서 더 질퍽했지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제시간에 동그라미에 둥글게 모여서 섰습니다.

머리 모양이 달라진 친구, 살이 좀 빠진 친구, 피부가 조금 까매진 친구, 키가 쑥 큰 친구- 모두 자기만의 겨울방학 이야기를 안고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반가움에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반별로 모였을 때는 숙제 검사를 받는 건 너무 떨렸지만, 6학년들이 졸업여행에서 동생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사온 선물을 받고서는 좋아서 입이 짝 벌어졌어요. 키링, 에코백, 팔찌, 티셔츠, 랜덤박스 등등 방콕과 홍콩에서 용돈 뿐 아니라 마음과 노력을 엄청 들여서 사온 6학년의 선물 덕분에 개학 날 공기가 더 훈훈했습니다.

졸업여행 보고도 듣고, 방학동안 찌뿌둥하게 굶어 있던 몸을 펴주는 필라테스도 하고, 1월과 2월에 생일인 친구들 축하도 하고, 방학 과제상 시상도 하고, 졸업식 예행 연습에, 모두 모여 영화 한 편 보고 나니 이틀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6학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 어떤 동생은 아쉬움을 속으로 꼭 참았지만 어떤 동생은 결국 눈물을 흘렸네요.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들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학년씩 더 올라가서 학교로 오는 그 날에는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 거라고 믿어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봄학기 이후 일주일동안 멋쟁이들은 각자마다 가정에서 나름대로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방학숙제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동안 6학년은 졸업여행을 한국보다 비교적 따뜻한 홍콩과 마카오로 다녀왔습니다. 짧지만 짝 알찬 일정들로 좋은 마무리의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엔 사은회를 준비하여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학년들은 졸업을 앞둔 6년 동안의 소감과 선물을, 선생님들은 멋쟁이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진하는 (진)멋쟁이 동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건네는 기쁨의 장이었습니니다.

오늘은 오후 3시에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있습니다. 멋쟁이학교에서는 고온유, 박인혁, 박세은, 이나영, 이현준 이렇게 총 5명의 멋쟁이가 졸업을 합니다. 6년 동안 멋진 성장을 보여준 멋쟁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신앙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끊이지 않는 변화, 멋쟁이들

졸업식이 거행되는 이맘때쯤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멋쟁이학교 교사로 지내게 된 이후 반복되던 것인데, 아마 열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그것이 싫지만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마음을 쏟았는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겠지요.

가까웠던 인연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살면서 여러번 겪는 일이고, 생각해보니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바뀌는 책상의 이름표는 어느 해던지 애달픔을 남기나 봅니다. 어느 때건 6학년들은 공부를 하던 밥을 먹던 웃고 떠들던 간에, 선생님들이나 후배들로 하여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며 어떤 어른이 될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은 어쩌면, 이제 그리던 미래의 첫걸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뿐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각자의 안배된 삶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알지만,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졸업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도 함께 마음속에서 휘돌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식이라는 찰나가 6년, 혹은 그 이상을 사랑방공동체에서 보냈던 기간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은 현재 안에서 서로의 과거와 감정을 잘 정리하기 위해 졸업식이란 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단마다 결론은 모르겠다네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고맙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멋쟁이들이 좋은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변화, 그야말로 멋쟁이들의 성장세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교사로 있고자 한다면 저 또한 그에 걸맞는 삶으로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383장, 304장

성경 : 시편 121편

말씀 : 주님께서 보호해주신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국의 총기사건 >

미국 레이크우드교회에서 지난 11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심지어 5세 아이를 동반했는데, 이 여성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했으며, 함께 있던 아이도 총을 맞아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일로 인해 신앙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여성모임-에제르>

한공협, 여성분들이 모인인 에제르를 위해, 특별히 영성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에제르를 포함하여 공동체의 모든 여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각 학교의 졸업과 입학준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무리와 새 출발을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 2)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회복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꾸러기들이 봄학기 한 주간 생활하는 동안 공동식구들은 식사준비를 돕고 설거지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도왔습니다. 공동체 주변이 많이 질척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노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불평불만 하는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공동식구들이 임시라도 불편함을 덜기 위해 깔개를 깔아주셔서 그나마 주말에 있었던 각 학교별 학부모님모임 때 불편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졸업과 함께 공동체는 새학기를 맞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새로운 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